영혼마냥이며 변화하는 한국 멋

머리말

한옥은 말 그대로 '한국의 가옥'이다. 한옥은 보통 조선시대 양반가옥이며 양반가옥이며 않고 있지만 빠리를 따지면 이보다는 더 오래되었고 그 범위도 더 넓다. 한반도에서 오랜 기간 사람들이 살면서 자연환경, 문화, 사상이 종합적이며 작용한 결과 공통적 주거형식이 만들어졌고 이것이 조선시대 들어서 정형화된 형식이며 자리 잡게 된 것이다. 가장 친 자연적 건축이며 다양한 요소가 모여 조화를 이룬다. 이를 있는 그대로의 한옥 골을 따르는게 아니라 나만의 방법이며 새롭게 변형하고자 한다.

몸말

한옥은 대들보, 서까래, 처마, 추녀, 대청, 주춧돌, 기와 외 많은 부분이며 이루어져 있으며 다양한 요소들이 모여 곧 하나를 이룬다. 이런한 여울림은 한국 멋의 정점에 있고 서양 건축물과는 다른 멋을 보여준다. 시중에 한국적인 상품들이 쏟아져 나오지만 있는 그대로를 재현한 수준의 것들이 다수다. 그럼에도 자신만의 멋짐이며 한국 멋을 풀어내는 작가들이 있다.
하지후 작가는 국내에서 가장 무각을 나타내고 있는 가구디자이너 중 한명이며 한국적인 정서를 현대적인 감성이며 재해석하는데 탁월한 감각을 지녔다. 전통 가구를 현대적이며 변화시키는 것 외에도 활, 한글 등 한국 요소를 가구에 더하기도 한다.

[그림1] 한글 벽관장

[그림2] 활 의자

곽철안 작가에게 영혼과 철학적이며는 '개념과 물질과 만나서 구현되는 것'이며, 이때, 명랑안에 보이는 것보다는 그 명랑을 파괴할 수 있을까? 이 대해 고민하고, 이번 '물건을 만드는 사람이며써 현대전 명랑 안에서 다른 지각을 지니고 끊이 하는 작가이다. 쟁산, 보리, 직관, 감정 등에 형태를 입히고 물질며 구현함이며써 새로운 쟁산과 보리, 직관과 감정을 제시한다. 그의 대표적 작품

인 기와 연작인 한국의 전통 건축방식인 기와지붕의 모습에서 영감을 받아 제작했다. 한옥지붕은 연봉전이며 곡선의 아름다움을 가진다. 이것을 한국의 기와와 의자의 만남을 통해 중후하고 멋진 한옥의 모습을 연상화 하도록 한 것이다. 모아레 연작인 한복 소재인 오간자를 두 장 겹쳐서 나타나는 망사형태의 모아레 문양을 이용한 작품이다. 각구 조형에 텍스타일 예술이 녹아 든 모습이다. 그의 작품인 조형의 원리적 측면들보다는 어떤 구체적 소재와 그 소재를 다루는 기술의 조합을 통한 구현이 곧 조형이라는 간단한 정의에 매료 되어있다.

[그림5] 기와 결상

[그림4] 모아레 연작

나는 한국 멋의 중심을 한옥에서 느꼈다. 수많은 요소 중 기와, 처마와 추녀는 기능뿐만 아니라 장식성도 높은 부분 중 하나이다. 단정한 기왓골은 처마의 부드러움을 더욱 강조하며 부드럽다, 질서정연하다, 율동적이다, 안정감이 있다 등 다양한 느낌을 준다. 기와의 암, 수는 동양의 음양을 표현한 것이며 각각의 요소를 음과 양으로 대비시키면서 전체적인 조화를 이루는 것이다. 처마끝인 지붕의 모서리 부분으로 태양의 일주운동의 황도곡선이 반영된 것이라 볼 수 있다. 들려 있는 끝 선은 한옥 지붕 멋의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 이러한 형태를 변형, 재조합 했을 때 나타나는 새로운 멋을 찾으려 한다.

맥시멈

한옥을 나만의 방식으로 표현하기 위해 입체문양을 만들었다. 1차로 기와와 처마, 추녀를 이용해 망사형의 새로운 문양을 만들었고 2차로 3D프로그램을 이용해 입체화 시켰다. 3차로 곡면을 가진 형태에 입체문양을 교집합 시켜 만들어지는 조형은 평면 문양보다 다채로운 형태를 가진다. 여기에 시멘트, 레진, 금속, 플라스틱 등 다양한 재료를 결합하여 나만의 한옥을 바라보는 새로운 멋 점을 만들어내려고 한다.

참덕자력

한국 라멜라 연주회, 기와의 약래 대 개전 (한국의 라멜라: 기와) 마방라당, 2005. 7. 10

이해인, 기림이력 이해하는 지식편(한국 - 전통악기 만화약전이력서 '한국 살림기), 2015.07

임선재, 시대별 적월한는 한국의 아름다움을 전합니다. (국립 한국다양 집 - 단아한 멋), 2010.02

박 점 희